

한국의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본 중국 사회복지관의 발전가능성

염사사*, 오승재**, 지은구***

*계명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연구원

**계명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선임연구원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huiling43@hotmail.com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Chinese social welfare center through the Korean social welfare center

Yan Shasha*, Seung Jae Oh**, Eungu Ji***

*BK21PLUS Training center for social integration expert, Researcher, Daegu, South Korea

**BK21PLUS Training center for social integration expert, Researcher, Daegu, South Korea

***Dept.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요 약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종합적인 지역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일정한 설비,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역사회서비스센터도 있는데 한국의 주민센터에 대응된다. 하지만 한국의 주민센터처럼 많은 복지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literature study)로서 한국의 사회복지관과 중국의 지역사회서비스센터를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사회복지관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한다. 연구결과 따르면, 첫째, 중국의 지역사회서비스센터는 한국의 주민센터에 대응된다. 하지만 중국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기능은 한국 주민센터보다 많이 부족하다. 둘째, 한국 사회복지관 대부분은 민간기관이지만 재정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단은 민간인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에게 복지관은 일터일 뿐이며, 운영과 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사업만 한다. 따라서 민간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현재의 중국 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복지관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론

현재 중국의 사회복지 현실은 한국의 1970-80년대와 매우 흡사하다. 개혁개방 이후 기존의 행정 관리형 사회복지서비스와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 예컨대 빈곤, 실업, 유동인구문제, 도시문제, 청소년문제, 가족문제와 이전에는 터부시되거나 존재하지 않던 동성애, 성매매, 도박, 에이즈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새로운 접근방법과 모델이 필요해졌다(鄒學銀, 2010: 282). 중국에서 지역사회서비스센터도 있는데 한국의 주민센터에 비교된다. 하지만 한국의 주민센터처럼 많은 복지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1990년대 들어 상해시정부는 이미 급격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뿐만 아니라 빈곤, 가족문제, 청소년문제 등 새로

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넘어선 새로운 현대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상해시정부는 서구 또는 홍콩의 사회복지사제도에서 방법을 찾았고, 2003년 2월 상해 푸둥신구에서 중국 최초의 민간(NGO)사회복지관, 즉 러첸사회복지관 설립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러첸사회복지관이 진정한 민간사회복지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literature study)로서 한국의 사회복지관과 중국의 지역사회서비스센터를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사회복지관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국 주민위원회와 지역사회서비스센터

개혁개방 이후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관계의 모색은 중국에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두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NGO등 민간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communitiy)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는 '작은 정부, 큰 사회'의 방침을 제창하였으며 그동안 국가가 전담하던 책임들이 사회와 같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는 완화되었고 민간조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4. 결론 및 함의

현재 중국의 사회복지지는 가족, 지역사회공동체, 조직 등 삼자가 떠받치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가족의 의무라는 오랜 중국의 전통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을 보충해주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는 가족의 부양 의무를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부부, 단신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문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주간보호소, 상담, 응급구호 등 여러 방법을 지방정부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민간사회복지관의 생명은 자율성인데,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에 자율성을 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이 관건이다. 하지만 현재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없이 유력한 기부자들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기적·장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기업들을 찾고 재정을 지원하는 후원단체를 개발하면 좋겠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중국의 사회복지가 한국의 70~80년대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우선 발전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수준 등에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한국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중국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좀 알 수 있다. 비록 현재의 중국 사회복지관은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사회복지사 처우가 낮다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틀림없이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관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권오균, 조당호. (201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실무자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제11호 (p.187-202)
- [2] 김가을. (2014).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다원적 분리형 복지체계에서 사회화된 통합적 보장체계로. 사회복지정책, 41(1), 65-94.
- [3] 김은혜, 원석조. (2015). 중국정부의 사회복지인재 대오건설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사회복지사.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2(1), 49-69.
- [4] 원석조.(2010).중국의사회복지사직업화·전문화와상하이모델. 한국사회정책, 16(2), 253-294.
- [5] 이성기, 원석조. (2015).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의 전개과정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31(3), 57-81.